

● 주님 승천 대축일

어떤 국왕이 뒤늦게 딸을 낳았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딸이었지요. 하지만 이 왕은 성격이 무척이나 급했지요.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 공주에게 약을 먹여 빨리 자라도록 하라. 나는 이 공주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

의사는 말했지요.

“저는 공주님께 약을 먹여 빨리 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그 약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약을 얻을 때까지 왕께서는 공주님을 보지 마십시오. 약을 쓴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는 곧 먼 곳에 가서 약을 구해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뒤에 약을 얻어 가지고 돌아와 공주에게 주어 먹게 한 뒤 왕에게 데리고 가서 보게 했지요.

왕은 갓난아기가 아닌 공주를 보고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의사로구나! 공주에게 약을 주어 갑자기 자라게 하다니”

왕은 신하에게 명령해서 그에게 보물을 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왕의 무지를 비웃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공주가 12년 동안 자란 것은 알지 못하고 그 장성한 것만을 보고 약의 힘이라고 말하다니...”

맞습니다. 약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공주를 그렇게 훌쩍 크게 했던 것은 시간

의 힘이었고, 공주 자신의 힘인 것입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보지 못했던 왕은 공주가 커버린 이유를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했고, 그 엉뚱한 곳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오늘 독서에서는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승천한 뒤에 제자들의 행동은 어떠했나요? 제자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말하지요.

“갈릴래야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아마 제자들은 아쉬운 마음에, 즉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인가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약속 해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을 써서 공주가 커버렸다고 좋아하는 왕의 모습,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아쉬움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모습.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간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즉, 어리석은 판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를 키우고 보살피고 있다는 어리석은 판단들. 주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당에만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지, 성당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사회에 나가서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하는 이중적인

모습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에 희망을 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생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엉뚱한 곳에서 진리를 찾는 어리석은 행동만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빠다킹 신부의 새벽을 열며……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도종환)

저녁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음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실가지 가볍게 덤으며 오르는
만월이기보다는
동짓날 스무 날 빈 논길을 쓰다듬는
달빛이었음 싶어.

꽃분에 가꾼 국화의 우아함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절초이었음 해.
내 사랑하는 당신이 꽃이라면
꽃피우는 일이 곧 살아가는 일인
콩꽃 팔꽃이었음 좋겠어.

이 세상의 어느 한 계절 화사히 피었다
시들면 자취 없는 사랑 말고
저무는 들녘일수록 더욱 은은한 아름다운
억새풀처럼 늙어갈 순 없을까
바람 많은 가을 강가에서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흐른다면
바위를 깎거나 갯벌 허무는 밀물 썰물보다는
물오리떼 쉬어 가는 저녁 강물이었음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세상을 흐르는 동안
갈대가 하늘을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음 좋겠어.

●공소일반공지 ●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익는 성가대장에게
-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성모 성월 기도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다.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그 이름은 “거룩한 분”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 힘을 펼쳐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도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있으시어
당신 중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조상들에게 언약하신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친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트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경축 제 14주년 본당의 날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본당이 1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당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여 주십시오.

◎ 경축 동부공소 제11주년

동부공소 미사 및 11주년 기념행사를 본당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토요일 저녁 7시 미사 및 친교식사

◎ 어머니날이 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아 주시는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5월 구역모임안내

- ▶1구역: 24일(토) 저녁 7시 김현덕 형제집
- ▶2구역: 31일(토) 저녁 6시 교육관
- ▶3구역: 10일(토) 저녁 5시 윤명원 형제집
- ▶4구역: 23일(금) 저녁 7시 안세영 형제집
- ▶5구역: 24일(토) 저녁 6시 정동근 형제집
- ▶6구역: 24일(토) 저녁 7시 이동기 형제집

◎ 5월 영명축일안내 - 축하드립니다.

노재현 아킬레오/황선영 쥘마 (12일), 남상목 마티아 (14일), 이정숙 클라우디아/백옥현 안셀모 (18일), 박찬영 리따(22일),전정미 요안나 (24일)

◎ 바뇨 기도회안내

5월 14일(수) 오후 7시 30분/ 장명길 형제집

◎울뜨레야 모임 안내

다음주 미사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친교 조 편성과 준비를 하오니 성모회 자매님들은 박 명옥자매께 연락주세요. 519-620-7215

◎ 5월 사목회의안내

오늘 미사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관리부에서 일립니다.

▶**교육관 사용 안내** : 필요한 부서및 단체는 관리부에 2주전에 예약하시고 교육관 열쇠는 사용당일에 관리부에 오셔서 사용대장에 서명, 인수하시고 반납은 다음 주일 날 성당에서 관리부에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적으로 이용할 단체는 사전 예약바랍니다 *

▶**교육관 정리 정돈** - 사회봉사 시간이 필요한 중고등부 학생들은 신청바랍니다.

▶**교육관/사제관에 필요한 비품과 현금을 기부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기부를 받으오니 공소 인터넷 클럽 또는 관리부로 연락주세요 ▶문의: 이명희 부장

(B)519 894 3533 / H) 896 9628/ C) 228 338 0679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 주간 전례

- ▶5 월 6일(화) 저녁 8시, 부활 제 7주간화요일
- ▶5 월 8일(목) 낮12시, 부활 제 7주간목요일
- ▶5 월 9일(금) 저녁 8시, 부활 제 7주간금요일

◎꾸르실리요 지도자 학교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당 친교실에서 개최 됩니다.

◎온타리오 5개 본당 친선 골프대회

일시 : 6월 17일 오후 1시 Shotgun
장소 : Highland Golf Club
참가비 : \$70(식사 및 기념품 포함)

◎성모동산 및 성당 주변 화단 봉사자 모집

문의 : 도 데레사 자매님

세종류의 사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다가가면 향기가 나고 웬지 포근한 사람 둘째, 가까이 다가가도 맹물같이 무덤덤한 사람 셋째, 하도 괴팍하여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2008-18

2008. 5. 4.

주님 승천 대축일

-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후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례

해 설 |이 민 차주 해설 김근효

화 답 송 하느님께서 환호 소리와 함께 오르시도다.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르시도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141) 죽음을 이긴
봉 헌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성 체 (179) 주의 사랑 전하리
퇴 장 (140) 주의 승천 찬미하네

독 서

5 월 4일 노원균 노숙회
5 월 11일 노재현 노정은
5 월 18일 서원일 서소영

봉 헌

5 월 4일 한택중 한재희
5 월 11일 노원균 노숙회
5 월 18일 노재현 노정은

복 사

5 월 4일 하람 한힘
5 월 11일 지홍 지현
5 월 18일 수빈 경은

2008 년 4월 27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735.00
성전건립:	\$ 265.00
The Poep's Pastral Works :	\$ 55.00
Total :	<u>\$ 1055.00</u>